

2019 돌아보기

Q1. 2019년 사업 성과 가운데, 가장 알리고 싶은 '작은변화'는 무엇인가요?



권연재
협력사업1팀장

지난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사례관리 등의 정부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 및 교육사업을 오래 지속해왔기에 반가운 정책변화입니다. 또한 쉼터퇴소 청소년을 위한 주거권 사업을 진행했는데, 같은해 하반기부터 쉼터퇴소 청소년도 임대주택 우선 순위를 보장받도록 한 여성가족부 지침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시작한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지원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노동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던 일도 작은변화로 알려드리고 싶네요!

Q2. 2019년 한 해 동안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김성식
1%나눔팀장

<열여덟 어른>캠페이너 4명을 만났던 각각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 당사자가 있을지 걱정하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당사자들을 만났는데, 저희보다 먼저 이 고민들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꿈을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기억입니다.

Q3. 2019년을 보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기부자님의 말은 무엇인가요?



두은정
기부자소통팀 간사

과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으셨다가, 지금은 기부자가 되어 주신 한 분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나의 1%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1%의 나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부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분의 '나눔 한마디'가 아닐까요?

Q4. 2019년 아름다운재단 조직 문화의 발전을 이끈 일은 무엇인가요?



박초롱
인재개발팀장

'조직문화진단 워크숍'을 수행한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조직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전사적 차원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과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Q5. 2019년 아름다운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요?



김아란
나눔사업국장

'작은변화'입니다. <열여덟 어른>캠페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문제를, <이름을 잊어도>캠페인을 통해 치매가정이 겪는 아픔에 대한 공감,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공익단체 지원을,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도 공익활동의 온기를... 전국을 무대로 '함께사는 세상을 위한 작은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미리보기

Q1. 2020년 아름다운재단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연안
변화사업국장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임팩트를 확인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및 쉼터 퇴소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위한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쉼터퇴소 청소년과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준비중입니다. <이른둥이 치료비 사업>개편과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모금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Q2. 2020년 아름다운재단과 발맞춰 작은변화를 만들어낼 기업 파트너로는 어떤 곳이 있나요? 어떤 멋진 만남이 기다리고 있나요?



이형명
기금기획팀 간사

KT&G와 MBC<나혼자산다>가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상품판매 수익금을 기부해 주셨는데, 보호종료청년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과 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기획중입니다. 15년간 인연을 이어온 LG생활건강과도 여성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Q3. 2020년 더 나은 아름다운재단의 조직 문화를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신아베
커뮤니케이션팀 간사

저는 2019년에 입사한 새내기 간사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재단에 정말 유쾌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비영리단체 사람들은 딱딱하고 진지할 것'이라는 막연한 저의 편견을 깨주셨어요. 더불어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이 참 견강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유익한 대화가 계속되어 다양한 의견이 아름다운재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든든히 받쳐주는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4. 올해 아름다운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만들고 싶은 '작은변화'는 무엇인가요?



안호미
2020팀장

2020팀에서는 올해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기부자님과 공익단체가 만나는 작은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님께는 보내주신 기부금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공익단체에게는 여러분의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는 많은 기부자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든 '작은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5. 아름다운재단 스무돌을 맞아 기부자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권찬
사무총장

사람에 대한 공감과 사회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함께 해나가면 보다 밝고 맑고 선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탄생부터 스무살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기부자님의 응원에 힘입어 계속 성찰하며 도전하며 성취하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